

작문 교육 관점에서 대화주의와 신수사학 비교 고찰

문선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김은주 산남고등학교 교사

이삼형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I. 들어가며
- II. 의미구성 주체로서의 '화자-청자'와 '주장자-응답자'
- III. 의미구성 과정으로서 '대화'와 '논증'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작문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쓰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작문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Nystrand(1993)는 작문이론을 크게 '형식주의 작문', '인지주의 작문', '사회구성주의 작문', '대화주의 작문'이론으로 구분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주의 작문이론이다.

앞서 언급한 작문이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대화주의 작문이론은 최근 주목 받고 있다. 그간 북미에서는 대화주의와 작문의 접점을 모색하는 이론 연구와 실제 작문 현상에 관한 실천 연구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실 작문 상황에서 사용되는 구체적 기법을 중심으로 한 실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작문 실천과 이론에 대한 균형 있는 학문적 접근을 위해서는 대화주의 작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 연구가 필요하다.

대화주의는 러시아의 문예철학가인 Bakhtin의 주요 개념으로, 그는 언어의 '대화'적 특성에 주목한다. 대화적 특성이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언

어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청자의 이해가 덧붙여질 때 의미가 완성된다 는 개념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언어관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선행된 대화주의 작문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huster(1985)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대화주의 이론을 소개하였고, Bialostosky(1991)는 대화주의를 적용해 대학생들의 실제 작문 과정을 이해하려는 연구를 진행했다. Halasek(1990)은 사회적인 작문이론에 대화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대화적 수사학의 정립을 시도했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이 산출되어 나오는 분위기에서 Nystrand(1989, 1993)는 대화주의 작문이론을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와 같은 반열의 작문이론으로 규정하였다.

국내에서 대화주의는 주로 문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작문과 관련된 연구는 실제 교수학습에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박태호, 1996; 김도남, 1997; 이재승, 1997). 대화주의 작문이론은 사회구성주의의 작문이론과 변별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면서, 박정훈(2002), 이남희(2006) 등에서와 같이 하나의 글쓰기 기법으로 적용된 연구들이 있었다. 대화주의 작문이론에 대한 탐구에 속하는 전은아(1999)는 작문의 주체인 필자와 독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재기(1997)에서 의미구성 요소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회구성주의와 구별되는 대화주의 작문이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그 성과는 풍부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고는 대화주의 작문이론과 관련된 논의의 하나로, 대화주의 작문이론을 신(新) 수사학에 바탕을 둔 작문이론과 비교하고자 한다.

신수사학은 전통 수사학과 구분되는 새로운 경향이다. 수사학을 구성하는 다섯 영역은 ‘착상-배열-표현-암기-발표’로, 이 가운데 ‘표현’에 대한 높은 관심은 ‘문채(文彩)’의 수사학을 냉기에 이른다.¹ 1950년대 이후 현대 수사학은 ‘문채의 수사학’과 논증, 설득의 방식에 중심을 둔 ‘설득의 수사학’

1 대표적인 학자로는 제라르 주네트, 츠베탕, 토돌프, 양 코양, 그룹 뷔 등이 있다.

으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Chaim Perelman, Lucie Olbrechts-Tyteca, Toulmin 등의 논의를 토대로 James Crosswhite는 ‘이성의 수사학’을 주창하며 청자와 화자를 모두 고려하여 논증 행위 이론을 재구성하며 신수사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자리매김한다. 그는 신수사학은 논증 행위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차원의 이성의 개념을 세우고, 이것에 근거한 고등 작문 교육에서의 문어적 추론의 교육적 필요에 대해 강력히 주장한다²(제임스 크로스화이트, 2001).

Bakhtin의 대화주의는 대화주의 작문이론의 철학적 기반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신수사학은 그간 작문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두 이론의 주요 행위 주체라 할 수 있는 대화주의의 화자-청자, 신수사학 논증이론의 주장자-응답자는 그 존재의 충위가 상이하므로 단순한 비교로는 작문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없다. 이에 본고는 작문 교육의 관점에서 화자-청자 의 대화 양상을 구체화하는 데 주장자-응답자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무관하게 여겨지던 두 작문이론을 작문 교육의 관점에서의 친연성(親緣性)을 드러내고, 작문 교육에서 대화주의 작문이 글쓰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2 19세기 중반 미국의 대학교육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1861~1865년 남북전쟁, 1862년 모릴 랜드법(The Morrill Land Grant Act) 대학과 관련된 공교육 시스템을 만든 법안과 산업화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 변화(전문직 중산층의 증가, 경제 기술 발달 등)로, 기존의 소수를 교육하던 고등교육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대학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에서 그간 소외되었던 여성, 아프리카 아메리칸 등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때 많은 공립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때 수사학은 영어영문학과의 접점을 통해 ‘작문 연구(Composition Study)’를 탄생시킨다. 하버드 대학 수사학과의 Edward Tyrrel Channing교수가 작문을 수사학과의 정식 과목으로 편입시킨 이후, 많은 대학에서 작문에 대한 큰 수요가 발생했다. 현대에 이르러 작문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II. 의미구성 주체로서의 ‘화자-청자’와 ‘주장자-응답자’

작문을 간단히 정의하면 ‘필자의 머릿속의 의미(생각과 느낌)를 문자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작문은 의미를 만드는 과정과 그것을 문자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그에 따라 작문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의미를 만들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의미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장에서는 작문에서 의미구성의 주체에 주목하여 대화주의와 신수사학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화주의와 신수사학 논증의 소통 주체인 ‘화자-청자’와 ‘주장자-응답자’를 함께 고찰할 수 있는 근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점은 무엇인가. 대화주의의 ‘화자-청자’, 논증의 ‘주장자-질문자’ 모두는 서로 작용을 하면서 그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대화주의의 화자와 청자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말을 하고 들어주며, 때로는 화자가 되고, 때로는 청자가 된다. 대화주의에서 화자의 일방적인 말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듣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논증에서의 합의 역시 갈등에서 비롯된 주장은 질문과 함께 진행된다. 주장은 질문에 의해서만 비로소 주장으로 가치를 가지며 의미 생성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주장과 질문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다. 주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주장은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 질문을 통해 주장은 다듬어지고 합의로 나아가면서 질문은 주장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드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주장과 질문 행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질문은 때로 주장의 자리에 서기도 하며, 주장 역시 변형되며 질문의 자리에 서기도 한다.

대화주의는 대화주의 작문이론에서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지만, 작문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은 작문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대화주의 작문이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대화주의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면 이를 구체화하여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체적 기능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신수사학 이론의 체계 속에서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서커스에서 두 사람이 텁을 만들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서로의 지지기반으로서 함께 힘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견고하게 말들여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작용 상의 공통점이 있는 개별적인 두 개념관계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글쓰기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철학적인 기반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토대로서 기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대화주의에서의 ‘화자-청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등한 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대화한다. 이는 ‘화자의 말은 청자의 응답이 있을 때만 완성이 된다.’는 Bakhtin의 언어관에서 비롯된다. Bakhtin은 Saussure식으로 말하면, 랑그(Langue)가 아닌 빠롤(Parole)을 강조하며,³ 진공의 언어가 아닌 실제 땅 위에 발 딛고 있는 말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대화주의에서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하는 화자 개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발화의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와 그

3 Bakhtin은 Saussure의 언어학을 ‘추상적 객관주의’라고 비판한다. 추상적 객관주의 언어학이 범하는 오류를 지적하며 ‘언어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문헌학’에 가깝다고 한다. Bakhtin은 추상적 객관주의 언어학이 고립적이고 독백적인 발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언어를 해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목표로 한 것을 비판한다. 추상적 객관주의 언어학은 사회적·역사적 현실을 외면하고, 합리주의적이고 기계주의적인 세계관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언어가 가지는 사회적·역사적 역동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Bakhtin은 Humboldt의 인지주의 언어학을 ‘개인적 주관주의’라고 비판한다. ‘심미적 언어학’으로도 불리는 주관주의 언어학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언어적 규범-어휘론, 통사론, 음운론-의 동일한 형식의 체계가 아닌, 개인의 창조적인 언어 행위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경향은 언어를 심미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표현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풍으로 이어졌다. Bakhtin은 개인적 주관주의 언어학 이론이 언어란 개인의 의식과 그것에 수반되는 의도나 창조적 충동 혹은 취향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관점에 반대한다.

말이 통용되는 실제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 존재한다. 그래서 말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적인 관계의 산물인 ‘사회적 현상’(Volosinov, 1973: 82-86)이 된다.

‘언어’를 통한 소통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 속에서 의미가 완성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전 이론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구성 주체’로서 화자-청자에 대한 관점을 달리한다. 형식주의, 인지주의 등 기존 작문이론에서 필자 혹은 독자라는 단일 구성요소에 의한 단독적인 의미구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대화주의는 ‘하나’의 결정된 요소를 의미구성의 주체로 삼지 않는다. 이를 작문에서의 의미구성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해본다면, 필자와 독자는 의미구성 과정에 동등하고 협력적으로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의미가 생성된다.

Bakhtin의 이런 언어관은 대화 참여자(Conversants)를 강조하기 때문에, 필자에게만 관심을 두었던 이전 작문이론에 비해, 의미구성자로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필자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 생산과정의 고정 성보다는 언어 사용자의 상호작용⁴에 의한 의미 생성 과정의 역동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구성’에 대한 인식은 전혀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에서 ‘주장자와 응답자’가 보이는 상호작용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기존의 철학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듣고 있는 응답자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수사학은 논증을 통한 합의 도달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응답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응답자는 주장을 듣고 이에 ‘대답’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제임스 크로스화이트, 2001: 106). 대답은 주장을 단순하게 듣고, 주장을

4 Bakhtin은 언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면서 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초(超)언어학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Bakhtin의 언어관은 이후 Nystrand(1993), Fish(1980), Brant(1992)의 논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Irene Ward(1994)는 Bakhtin의 언어관을 언급하면서 작문의 대화적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만큼 Bakhtin의 언어관은 작문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인 반면에, 질문은 일반적인 응답의 역할에서 벗어나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⁵

대화주의에서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논증이론에서 주장자와 응답자 역시 갈등에서 비롯된 하나의 주장이 질문을 만나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이뤄가게 된다. 대화주의의 ‘화자-청자’, 논증이론의 ‘주장자-응답자’의 관계를 작문의 상황으로 전환하면, ‘필자’와 ‘독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작문이론에서 독자는 소극적 의미구성의 주체에 머무르거나 혹은 의미구성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통의 작문이론에서 필자는 글을 쓰는 사람을 뜻하고, 독자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을 뜻했다. 인지주의의 작문이론에서 독자는 필자가 고려하는 대상으로, 머릿속에 떠올린, 필자가 쓴 글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사회구성주의의 작문이론에서 독자는 실제 공동체 구성원으로 필자가 쓴 글을 읽을 사람일 수도 있으나, 역시 필자가 준수하는 공동체의 담화관습이나 규범과 같은 추상화된 개념으로 사용됐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는 음성언어를 이용한 의미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Bakhtin의 대화주의 철학에서 ‘화자와 청자’의 개념은 음성언어 의사소통 상황에 한정되지 않으며, 음성언어의 사용 환경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지닌 소통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자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5 제임스 크로스화이트(2001:101)에 따르면 성서에 제시된 ‘창조주-질문자, 피조물-응답자’의 비유에서 ‘질문’이란 힘 있고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여 창조할 수 있는 행위다. 고립적이고, 단선적인 ‘단언(斷言)’을 활발한 의미 생성의 장(場)으로 작용하는, ‘주장’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질문’이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으로서 질문은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존에 주장자와 응답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변증법적 합의의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수사학에서 '화자와 청자'는, 수사학이 원래 법정이나 광장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음성언어로 전하던 데서 유래되었다. 특히 논란이 되거나,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화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뒷받침하여 '주장'한다. 이를 듣는 청자는 이견이 있거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말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질문'을 한다는 편이 적절하다. 즉, 공동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에서는 '주장자와 질문자'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앞서 살펴본 필자와 독자, 화자와 청자, 주장자와 응답자의 개념은 기존의 작문이론, 수사학, 신수사학 등에서 사용된 소통 주체에 대한 명명이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필자와 독자' 가운데 독자의 개념은 기존의 작문이론에서 밀하는 특정한 어느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지 않는다. 독자는 '단일하고 결정된' 범주라기보다는 다양성을 지닌, 변이를 포함하는 범주이다. 양 경희(2012)에 따르면 독자는 다변성을 지닌 역동적이고 중층적인 존재다. 독자는 작문 상황에 따라 변이한다. 예를 들어, 독자는 어버이날 편지를 받을 초등학교 학생 필자의 엄마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학문 공동체 안에서 논문을 읽을 잠재적 학자 군(群)으로 추상화되기도 한다. 독자는 필자가 가정한 대상으로, 여타의 쓰기 요인과 관계를 맺고 쓰기 과정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의미구성의 주체이며, 쓰기 상황에 따라 중층적으로 상정되고 작용한다.

형식주의 작문이론에서 의미는 결과로서 존재하는 텍스트에만 있었다.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필자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독자 또한 자리가 없었다. 당연히 그곳에는 필자와 독자는 관계라고 불릴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 인지주의 작문이론에서 의미는 텍스트를 써 낸 필자의 머릿속에 존재했다. 필자는 글을 쓰기 위해 독자를 상정하고 고려한다. 하지만 글쓰기 과정 자체가 필자의 수사학적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독자는 필자에 비해 열세(劣勢)에 위치했다.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에서 의미는 필자가 소속된 담화 공동체에서 비롯된다. 필자는 공동체 속에서 소통되기 위한 관습을 준수하면서 글을 쓰게 되므로, 실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필자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이다. 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체가 비로소 의미구성 과정에서 필자보다 강력한 기능을 하며 이전 이론들과 달리 독자는 필자를 얹누르는 위치에 자리한다.

형식주의-인지주의-사회구성주의로 이어지는 작문이론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미구성 과정에서 '독자의 역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이론들과는 다르게 의미구성의 주요 주체인 필자-독자의 관계를 동등하고, 호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론들이 존재한다. 대화주의에서의 '화자-청자'와 신수사학의 논증에서의 '주장자-응답자'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⁶ 전혀 별개의 이론으로 보이는 대화주의와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은 작문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의미구성에서 필자와 독자의 동등한 참여를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친연성(親緣性)을 갖는다. 대화의 '화자-청자', 논증의 '주장자-응답자'의 개념이 가지는 이론적 친연성은 두 개념관계가 가지는 공통점과 상호보완적 포즈에 있다.

본 장에서는 대화주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화자-청자와 신수사학에서 논증을 해 나가는 주장자-응답자가 상호작용자로서 의미구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 장에서는 의미구성의 주요 주체인 이들이 과연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지 보다 자세히 고찰해보기로 한다.

III. 의미구성 과정으로서 '대화'와 '논증'

흔히 사람들은 글쓰기를 필자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을 문자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필자는 글을 쓰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

6 물론 기존 이론에서 비교적 열세(列世)에 위치했던 수신자의 위치로 인해 두 이론 모두 청자와 응답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글쓰기를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으며, 글쓰기는 사실 ‘사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글쓰기를 사고 과정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 형식주의 작문이론에서는 글로 나타난 결과물에 의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오직 글만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필자가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인지주의 작문이론에서는 필자가 글을 쓰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작문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플라워 & 헤이즈(1981)는 작문 과정을 ‘계획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조정하기’로 나누었는데, 이 가운데 ‘표현하기’ 과정만 언어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다른 과정 모두 ‘사고’ 행위이다. 즉, 글을 쓰는데 핵심은 사고 행위이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무엇을 쓸 것인지, 또 생성된 내용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미구성’ 과정이 된다.

본장에서는 대화주의의 ‘대화’의 과정과 신수사학의 ‘논증’을 작문에서의 의미구성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대화주의 작문이론의 의미는 형식주의 작문이론에서처럼 ‘단어-문장-단락글’의 단위 순서에 따라 구성되지 않는다. 인지주의 작문이론에서처럼 의미구성을 먼저하고 나서 글을 쓰면서 의미가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인지주의 작문이론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과정으로서 글쓰기에서처럼, 필자가 차례대로 문제를 맞닥뜨려 이를 해결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대화주의 작문이론에서 필자와 독자는 이전에 언급한 작문이론들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대화주의 작문이론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대화주의에서 ‘화자와 청자’가 나누는 모든 말들은 다른 발화에 대한 반응에서 출발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발화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발화에 대한 반응이며, 또 미래에 있게 될 발화에 대한 반응을 의식하여 존재한다. 이처럼 ‘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맥락 위에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된 말이라도 어떠한 맥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누구세요?’라는 관용구는 모르는 사람의 정체를 묻는 존대 표현

이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사이라는 맥락에서 발화된 ‘누구세요?’는 급작스런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화주의에서 말은 이와 같은 이어성(異語性)⁷을 떠므로, 발화의 구체적인 상황, 즉 맥락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즉, 의미구성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제적인(Authentic)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대화주의에서 말은 항상 상대방을 전제할 때만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Nystrand(199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 Saussure나 Roman Jakobson은 화자와 청자의 행위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Bakhtin은 달랐다. 대화주의에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염밀히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대화를 하면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화자만의 발화도 없고, 청자만의 이해도 없고, 결국은 화자와 청자의 말이 섞여 발화되고, 이해되어 의미가 생성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대화주의 언어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화’이다. 여기서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일상적인 뜻이 아니라 언어 상태(Language Status)로서, 하나의 목소리만 가득한 순정(純正)의 상태가 아닌 혼합(混合)의 상태를 뜻한다. 화자와 청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맥락 위에 화자와 청자는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말들을 만들어 낸다. 이때 화자의 목소리와 청자의 목소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목소리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전 화자의 목소리와는 다른 어떠한 변화를

7 같은 명제를 담고 있는 말이라도 표현 형식이 달라지는 것도 이어성에 대한 설명이다. ‘밥 먹다’라는 명제를 양민이 ‘진지를 잡수다’라고 표현했을 때와 하층민이 ‘밥 쳐먹다’라고 했을 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옥동(1988)은 ‘언어는 단일한 문화 체계 안에서 외적으로 분화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국어 안에서도 내적으로 분화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국어 안에는 공식적인 면에서 보면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 혹은 성별과 나이의 차이에 의해 사회적 방언, 그리고 서로 다른 공간에 따라 지리적 방언이 존재한다.’고 했다.

8 Nystrand(1993)에서도 의미의 중심이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서 연원하고 있음을 말한다.

거친 새로운 화자의 목소리가 태어난다. 이러한 변환은 한 번만 일어 날 수도 있고, 수차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혼합의 상태로 존재하는 화자와 청자의 말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khtin의 대화적 수사학을 위한 방법론을 작문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담화 속에 넣고 아이디어를 검증, 경쟁, (재)창조⁹해서 진리에 다가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들을 교환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Bakhtin (Zappen, 2004: 34)

Bakhtin이 제시한 ‘대화적 수사학(Dialogic Rhetoric)’의 방법은 ‘검증-경쟁-창조(TestContest-Create)’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는 화자와 청자가 벌이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대화적 수사학의 방법론은 다시 ‘검증경쟁’의 과정과 결과로서 제시된 ‘창조’의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의미의 생성을 위해 ‘검증과 경쟁’의 과정을 겪고 난 뒤, 새로운 의미가 ‘창조’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화자는 우선 자신의 생각을 검증(Test)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대화 상대자(Conversants)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의 여러 생각들에 대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끄집어내고, 반응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나란히 배열하여 놓고 자신의 생각에서 오류나, 모순, 불일치를 찾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검증의 과정을 통해 필자는 자

9 강조 : 필자

신의 아이디어가 오롯이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함께 존재하는 ‘다성성’의 상태임을 인지하게 된다.¹⁰

이어 화자는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경쟁(Contest)시킨다. 그리고 자신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¹¹이 서로 논박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가 지녔던 생각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나 진리로 변환된다(Create).¹² 이러한 경쟁(Contest)은 카니발적 토론(Carnivalesque Debate)¹³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다. 카니발적 토론은 카니발리즘의 속에 벌어지는 자유로운 담론의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하나의 단일한 생각에 의해 구성되는 의미는 이미 만들어진 진리이고, 독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에 의해 구성되는 의미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진리가 태어나는 곳이 된다(Zappen, 2004: 35). 화자와 청자¹⁴는 대화를 나누며, 대화는 이때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

-
- 10 이것이 실제 현실과 아주 가깝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담화 본연의 성질을 인식하고 현실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1 필자-독자 상호작용 중심 작문 접근에서 독자는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 대상으로서 독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구성에 있어 참여자를 지칭한다. 여기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는 표현은 독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 12 이것은 수사학의 삼각함과는 다른, 민속 축제의 토론(debate)에서 연원된, 발랄한 관계성(joyful relativity)을 가진 대조, 대립(contrast, opposition)이다. 여기서 반대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높음과 낮음, 고귀함과 천함, 밝음과 어두움과 같은 것. 이 둘 사이의 작용은 변화(change), 변천(transition), 그리고 창조적인 갱신(renewal)의 과정 속에 현상을 이해하게 한다.
 - 13 카니발적 토론에 대해서 Lee Honeycutt(1994)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카니발적 토론은 삶과 죽음, 어둠과 빛, 겨울과 여름 등 사이에 있으며, 변화의 파토스, 만물의 흥겨운 상대성과 함께 존재한다. 어느 한 쪽에서만 보는 삼각함이나 의미의 단일함, 정의에 대한 명청한 집착 안에서 멈추거나 굳어버리는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김육동(1991)에서 ‘카니발’은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되어 관객, 감독, 배우가 하나가 되고, 구별이 불가능해지도록 각광(footlights)이 사라지는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 14 물론 이때, 필자 역시 대화참여자이다.

대화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소통의 과정이 된다.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참여자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의미는 기존의 어떤 역사적 사실의 인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환언(Paraphrase)된 말도 아닌 새롭게 창조된 것이 된다.

두 사람의 대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산출되며, 의미는 생성되는 것이다.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생각들이 있을 경우, 양자를 서로 비교하고, 모순을 찾고,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관점의 아이디어가 창조된다.

의미의 구성 과정에 대한 대화적 수사학의 방법론의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을 통해 실제 글쓰기에서의 의미구성의 모습을 가늠해보자. 의미구성의 구체적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 대화주의의 대화적 수사학과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을 원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Ⅱ장에서 밝혔듯이 의미구성 주체들이 작용하는 양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대화와 논증의 과정 모두 단일한 혹은 고정된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전제를 가진다.

두 번째 이유는 신수사학이 가진 글쓰기에 대한 관점 자체에서 기인한다. 신수사학에서는 글쓰기를 필자와 독자가 벌이는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논증은 필자와 독자가 벌이는 긍정과 부정, 질문과 대답, 도전과 응대(대응)의 과정이며, 갈등의 양상으로 표현된다. 글을 쓰는 동안 필자와 독자는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수사학은 글쓰기를 논증 그 자체로 보고 있다(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콜럼, 2008). 논증¹⁵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개개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사안

15 전통적인 관점에서 논증이 사회문화, 역사적 맥락을 배제하고 명제의 형식적인 관계를 따져 보는 합리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성의 수사학에서 말하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의 실제 과정을 보여주는 논증은 맥락을 배제하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회적인 행위다.

에 대하여 이성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단일한 상황에서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상황에 알맞은 합의된 진리를 찾는다. 실제 필자가 글을 쓸 때 많은 생각들이 필자의 머릿속에 존재하지만,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을 거쳐 선정된 몇 가지 생각만이 글로 드러나게 된다. 글로 표현된 생각은 단일한 하나의 의미로 통일되어져 나타났다기보다는 여러 생각이 글로 표현된 하나의 의미로 ‘합의되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수사학의 논증 개념은 글쓰기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다.

논증에서 주장자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응답자에게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제시한다. 이 말을 듣는 응답자는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그것을 명백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한다. 이때 응답하는 수준은 ‘명료화’, ‘이유 제시’, ‘반대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제임스 크로스화이트, 2001: 112). 예를 들어 (가)와 같은 생각을 떠올린다고 가정하자.

(가) 미국의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있다.¹⁶

(가)와 같은 주장에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첫 번째 수준은 ‘명료화(Clarification)’에 대한 요구다. 만약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문제 삼을 만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장자가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들이 과거에 비해 그저 흥미에 기초하여 투표하고,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에 대해 응답자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군. 만약 민주주의가 쇠퇴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기회들이 쇠퇴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기회들이 자유로운 개인들

16 제임스 크로스화이트(2001: 112)에서 편집하여 인용함.

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앞서 가정한 대화에서는 ‘쇠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기 전까지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 대신에 ‘쇠퇴’라는 말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논증이 생겨나거나 혹은 새로운 단어를 찾는 탐색적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용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한 명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주장에 관한 논증, 주장에 대한 새로운 변형이 진행된다.

명료화를 통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응답자는 주장자의 (가) 생각에 대해 ‘이유(Reason)’를 요구하며, 여기에 함축된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 미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응답자가 주장자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진실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또 응답자는 필자의 생각에 ‘반대(Contradictions)’ 주장을 제시하며 답할 수도 있다. 만약 (가)에 대해 ‘오히려 미국의 민주주의는 변형하고 있다.’라고 답한다면 이것은 응답자가 주장자의 말 건넴에 대해 상호적인 응답을 보낸 것이면서, 이와 함께 주장자 상호적인 요구와 응답 및 논증 행위와 병렬적인 진행이 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반대 주장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반대 논증과 더불어 처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에 통합되며 종속된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주장은 생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서 비롯된다. 차이와 갈등에서 연원하는 주장자와 질문자의 상호작용은 실제 글쓰기에서는 필자의 머릿속에 상정된 독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필자가 상정한 독자와의 상호작용은 독자가 보이는 응답의 수준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이 결정된다. 단순한 ‘대답자’에서 ‘질문자’로 변해가며 적극적으로 의미구성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¹⁷

17 응답자의 응답에 따른 의미구성의 구체적 양상은 앞서 제시한 논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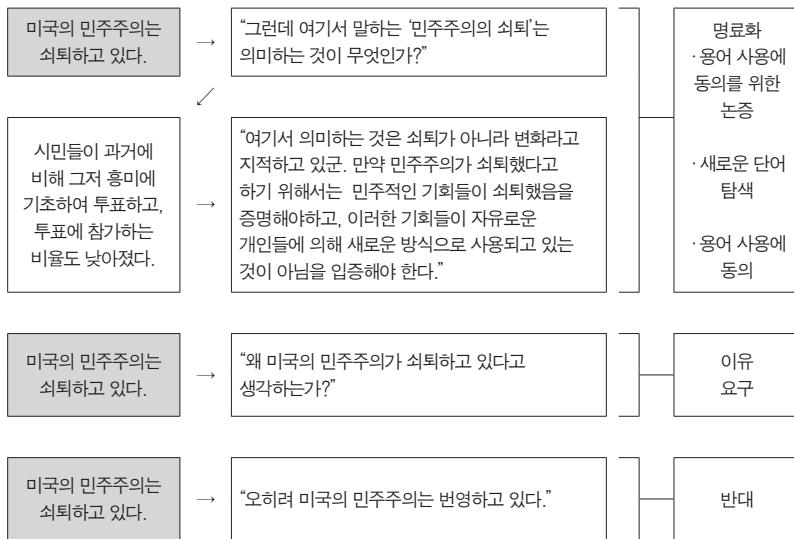


그림 1. 명료화, 이유 요구, 반대의 예시

앞서 독자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대답자가 아닌 질문자로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반적인 응답의 역할에서 벗어나 어떤 특권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서술하였다. 어떤 명제를 하나의 주장으로 듣고, 이에 질문하는 것은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응답하며 의미를 생성하

다른 글의 유형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논의 공간이 한정된 관계로 간단한 예를 들고 후고를 기약한다.

예를 들면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상황을 상정해보자. 인지주의의 작문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전략을 통해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상세화하여 글쓰기를 전략적으로 한다면 효과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상세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명료화', '이유요구', '반대'라는 응답을 가정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글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기를 소개'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친교인지, 취업인지, 정보전달인지 등을 분명히 한다. 글쓰기의 목표가 취업으로 드러났다면, 이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글을 쓰기 위해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이란 무엇인지 명료화를 하고, 그 능력을 중심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는 것이다(제임스 크로스화이트, 2001: 106). 여기서 보이는 ‘명료화와 이유제시’에 대한 요구는 Bakhtin의 대화적 수사학의 방법에서 말한 ‘검증(Test)’을 구체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필자의 생각에 ‘반대’주장을 하는 독자의 역동적 활동을 통해서 여러 생각들이 서로 ‘경쟁(Contest)’하고 그 결과 새로운 ‘창조(Create)’적 의미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즉, 의미 생성은 ‘검증(Test) – 경쟁(Contest)’의 과정을 통해 ‘창조(Create)’의 결과에 이른다. 이때 검증(Test)의 단계는 구체적으로 ‘명료화(Clification)’와 ‘이유(Reason)’를 제시하게 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다른 생각들은 서로 비교하며 모순과 불일치를 경쟁시키는 과정은 ‘반대(Contradiction)’ 의견을 제기하면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검증과 경쟁의 결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가 ‘창조(Create)’되는 것이다. 글쓰기에서 의미 생성의 핵심은 대화참여자인 필자와 독자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어떤 수준의 응답을 보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게 된다.

대화주의의 화자와 청자, 그리고 신수사학 논증이론의 주장자와 질문자의 상호작용은 대화주의 작문이론에서 필자와 독자의 의미구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여 대화주의 작문이론의 의미구성은 이전의 작문이론들과 큰 차이를 갖게 한다.

형식주의 작문이론에서는 의미구성의 과정이라는 인식의 틀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활자화된 텍스트가 의미구성의 결과로 제시되었다. 인지주의 작문이론에서 의미는 필자의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며 창조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 숙련된 일부 필자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스스로 생성하고 조직하는, 필자에게는 어려운 과제였다.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에서 의미는 필자가 담화공동체의 관습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었다. 의미구성의 초점은 ‘창조성’보다는 담화공동체 규범을 거스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승인성’에 두어지게 된다. 하지만 대화주의 작문이론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대화적인 과정을 통해 조직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IV. 나오며

본고는 대화주의 작문이론을 고찰하기 위해 작문 교육의 관점에서 대화주의와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을 비교 고찰하였다. 대화주의의 화자 - 청자와 논증이론의 주장자 - 응답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며 상생(相生)적인 상호작용자로서의 기능한다. 두 이론은 의미구성요소인 필자와 독자가 정(定)해진 역할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의미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역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대화주의의 대화와 신수사학의 논증은 작문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미구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다 풍부히 할 수 있으며, 이론적 친연성(親緣性)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화주의의 의미구성 과정은 '검증-경쟁-창조(Test-Contest-Create)'로 이뤄지며, 논증이론의 의미구성 과정은 응답자가 보이는 '명료화(Clarification), 이유(Reason) 요구, 반대(Contradiction)'를 통해 이뤄진다. 두 의미구성 과정 모두 화자와 주장자, 청자와 응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앞서 연구되었던 형식주의 작문, 인지주의 작문,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과 변별되는 대화주의 작문에서의 필자와 독자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점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연구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을 이용하여 대화주의 작문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구체화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기법으로서 대화주의 작문을 중심으로 한 경향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본고와 같은 작문이론으로서 대화주의에 대한 연구는, 작문이론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3. 2. 28. 투고되었으며, 2013.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3.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도남(1997),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문 지도 방법 탐구」, 초등국어 교육 학회 제1회 벌표문.
- 김옥동(1988),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4), 『Bakhtin의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 김자영(2003), 『대회주의의 작문 지도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우(1990), 『언어』, 탑출판사.
- _____ (2010), 『언어와 수사-신수사학 서설』, 한국문화사.
- 남성수(2001), 「협동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작문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린디플라워 저, 원진숙 역 (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 박영목(1994), 「의미구성에 관한 설명 방식」, 『선청어문』 22집, 서울대, pp.199~219.
- _____ (2007), 「작문 지도 모형과 전략」, 『국어교육』 124, 한국어교육학회, pp.181~215.
- _____ (2008), 『작문 교육론』, 역락.
- 박영목 외(2003),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pp.148~152.
- 박정훈(2002), 『대회주의 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의 수행 양상 분석』, 광주교대 석사 학위 논문.
- 박태호(1996),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작문 교육 이론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98),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사회구성주의 쓰기 교육 이론」, 『청람 어문학』 20, 청람어문학회, pp. 303~352.
- _____ (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 학습 원리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 양경희(2012), 『쓰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독자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오순임(2001), 『작문 전략 수행과 연습지 (Worksheets)의 활용이 작문에 미치는 효과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월터 J. 옹, 이기우 역 (2000),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이남희(2006), 『글쓰기 실제 지도 방안 연구(대회주의 작문이론을 중심으로)』, 인제대 석사 학위 논문.
- 이삼형·양경희(2009), 「글쓰기에서의 독자의 다층적 역동성」, 『작문연구』 9집, 한국작문학회, pp. 249~275.
- 이재기(1997), 『작문 학습에서의 동료 평가 활동 과정 분석』,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06), 「쓰기 교육에서 학생 필자의 자리」, 『청람어문교육』 33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 51~88.
- 이재승(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_____ (2010), 「작문이론의 변화와 작문 교육에서의 수용」, 『국어교육』 131, 국어교육학회, pp.

- 전성기 외(2004), 『텍스트 분석방법으로서의 수사학』, 유로서적.
- 전은아(1998), 『대화주의의 작문이론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오형업 역(2001), 『이성의 수사학-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고려대 출판부.
- 조셉 윌리엄 외, 윤영삼 역(2008), 『논증의 탄생』, 흥문관.
-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 Bakhtin, M. & Volosinv, N. (1976), *Freudianism: A Critical Sketch*, (trans.) I.R. Titunik, Univ. of Indiana, p. 79.
- Bialostosky, Don H (1991) "Liberal Education, Writing, and the Dialogic Self," In: *Contending with Words*.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New York, pp. 11~22.
- Bizzell (1992), *Academic Discourse and Critical Consciousness*,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Bruffee, K. A.(1986), "Social construction, language, and the authority of knowledge," *College English* 48, NCTE, p.784.
- Flower, Linda& Hayes(1981),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32 No.4.
- Irene Ward (1994), *"Literacy, Ideology, and Dialogue: Towards a Dialogic Pedag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Jeffrey Walker (2005), "A Short Institutional History of Rhetoric in North America after the 18th Century,"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Rhetorik*, vol. 7. Tübingen, Niemeyer in German, pp. 1734~1740.
- Kay Halasek (1999), *A Pedagogy of Possibility Bakhtinian perspectives on composition studies*, South Illinois Press.
- N. N. Spivey, 신현재 외 역(2004),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도서출판 박이정.
- Nystrand M. (1982), *What Writers Know: The Language, Process, and Structure of Written Discourse*, Academic press, INC.
- _____, (1989), "The Social Interactive of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Vol. 6 pp. 66~85.
- Nystrand M, Greene S., and Wiemelt J. (1993), "Where did composition studies come from?," *Written communication* 10/3, pp. 267~333.
- Lee Honeycutt (1994), *What Hath Bakhtin Wrought? Toward a Unified Theory of Literature and Composi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degree of Master of Arts.
- Schuster, C. (1985), "Mikhail Bakhtin as Rhetorical Theorist," *College English*, Vol. 47, pp. 594~607.
- Voloshinov, Valentin N. (1973),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Trans. Ladislav Matejka and I.R. Titunik. 1st ed. New York: Seminar Press.
- Vygotsky (1986)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작문 교육 관점에서 대화주의와 신수사학 비교 고찰

문선희 · 김은주 · 이삼형

작문은 의미구성 과정이며, 이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형식주의 작문, 인지주의 작문, 사회구성주의 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대화주의 작문이론은 국내에서 실천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론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신수사학의 논증이론과 대화주의의 대화의 개념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대화주의 작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작문이론들과는 달리 대화주의 작문이론에서의 필자와 독자가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변증법적이고 대화적인 의미구성 과정을 통해 창조적 의미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대화주의 작문이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핵심어 대화주의, 대화, 신수사학, 논증, 작문 교육, 필자-독자, 화자-청자, 주장자-응답자, 상호작용, 의미구성 과정, 의미구성요소, 검증-경쟁-창조, 명료화-이유요구-반대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Dialogism and New Rhetoric in View of Composition Education

Moon, Sun-hee & Kim, Eun-joo & Lee, Sam-hyung

Composition is a meaning-making process and it can be explained with many related theories: formalism composition, constructivism composition, social constructivism, dialogism composition, etc. Among them, dialogism has been given relatively more weight. Yet, it has been practiced through case studies and is not being studied theoretically much in Korea. This thesis is aimed at theoretical exploration of dialogism from a New Rhetoric perspective; equal weight is shared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in terms of communication; meaning is constructed via dialectic and dialogic processes. Through this thesis, dialogism composition may be given a chance to be explained in a new light.

KEYWORDS Dialogism, Dialogue, New rhetoric, Argument, Composition Education, Writer-reader, Speaker-listener, Asserter-responser, Interaction, Meaning-making-process, Elements of meaning-making, Test-contest-create, Clarification-requesting reasoncontradiction